

● 고희 앞둔 백수인 시인 '겨울 언덕의 백양나무숲' 출간



고희에 다다른 시인의 현재의 삶, 내적 고백이 담긴 시집이 발간됐다. 백수인 시인의 세 번째 시집 '겨울 언덕의 백양나무숲'(문학들)이다. 총 4부 53편 시를 엮어낸 이번 시집은 여러 존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작가의 내면세계가 오롯이 담겨있다.



아이클릭아트

# 우주와 합일 꿈꾸며...귀로 보는 풍경의 깊이

## 깊은 사유·청각적 심상 두드러진 '물과 바람' 등 4부 53편 시 수록



백수인 시인

'물과 바람'이라는 시 속에서 화자는 "나는 죽어서가 아니라/살아서 이미 물이 되었지요" "내 몸속은 지금/향기로은 당신의 꽃 바람으로 가득해요"라고 고백한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삶, 바로 지금의 물과 바람 속나는 당신과 한 몸이 된다. 연륜의 문장에는 미사여구도 치장이다. 수백 년 묵은 종가에서 우거진 풀을 매다가 무수한 뼈들을 발견한 시인은 "어떤 뼈에는 포악한 탐욕의 이빨 자국이 찍혀 있고/어떤 뼈에는 매미 우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 새들 지저귀는 소리들이 화석으로 고여 있다/시간은 수많은 바람과 소리와 그림자들과 함께 지나가 버렸지만/그 단단함은 뼈의 모습으로 땅속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구나"(시 '시간의 뼈')라고 노래한다. 간결한 언어로 빛나는 명징한 이미지에 깊은 의미의 파장이 인다. 때죽나무가 있는 골짜기를 흐르는 물은 "작은 종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하얀 종소리"가 되고 그 종소리

로 물고기들은 열반에 들고 시인도 그들과 하나가 된다. "그 종소리들이 물에 녹아 흐르면 먼 강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잠깐 기절하듯 잠 속에 빠진대네요 그때 물고기들이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네요 내 몸속으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종소리들이 나를 넓직한 바위 위에 앉히고 가부좌를 틀게 하네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숨을 쉬네요"(시 '때죽나무') 고희에 이르러 시인은 이제 썰물을 노래한다. "이제 비로소/밀물은 스스로 썰물이 된다//썰물/모든 욕망 다 버리고 돌아서서/뒷모습이다"(시 '밀물과 썰물') 저자와 동향인 이대흠 시인은 이번 시집에 대해 '귀로 듣는 풍경의 깊이'라고 평했다. 이대흠 시인은 "백수인의 이번 시집은 물의 이미지가 많고,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시인의 사유가 깊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의 눈이 밖으로 향하면, 풍경이 보일 것이고, 마음의 눈이

안으로 향하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바다처럼 큰 귀로 받아들일 세계가 자못 궁금하다. 우주의 신음을 듣기 시작한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고 평했다. 한편 백수인 시인은 1954년 장흥에서 태어나 '시와시학'에 추천돼 시인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 '현대시와 지역문학', '소통과 상황의 시학', '소통의 창', '장흥의 가시문학', '기봉 백광홍의 생애와 문학', '대학문학의 역사와 의미', 시집으로 '바람을 전송하다', '더글러스 퍼 널빤지에게가 있다. 조선대 국어교육과에서 정년퇴임했으며 한국언어학회 회장,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 대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5·18기념재단 이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윌타시' 등으로 조선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다. /최명진기자

# 몽상적 사유로 들여다본 언어의 결·깊이의 상상력

## 최휘웅 평론집 '탈서정과 꿈의 현상학' 출간



최휘웅(사진) 시인이 두 번째 평론집 '탈 서정과 꿈의 현상학'(작가마을)을 펴냈다. 이번 평론집은 2006년 시인이 펴낸 평론집 '억압, 꿈, 해방, 자유, 상상력' 이후 18년 만이다. 최 시인은 1982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이후 줄곧 현대시의 모더니즘에 관심을 두

고 시 창작과 시론을 펼쳐왔다. 그는 한국 슈트레알리즘의 대부인 조항 시인 문하에서 현대시 수업을 받으며 모더니즘 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현대시의 특질인 언어의 결과 깊이의 상상력을 발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평론집에는 최 시인의 시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글과 시인론, 각종 문예지에서 다룬 월·계간평 등 다양한 글이 모였다. 1부 '한편의 시를 말한다'에서는 정진규,



윤석산 등 관록의 시인들 작품부터 신정민·최정란·김예강·송진·진은영·윤홍조·강성은·박이훈·최승아·김순아·김국·고훈실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여성시인을 주목한다. 2부 시인 작품론에서는 조항, 하현식론, 신진론 등 현대시의 초월적 상상력에 주목한 글과 안효희론, 권오주론, 고윤희론 등 젊은 시인들의 시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3부 시평에서는 '토속종교와 문학',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과 '1960년대 순수시와 참여시' 등 각종 문예지에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지난 세대 주요 논쟁의 주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다. 또한 계간평을 통해 김규태·박정룡·강준철 등 동세대 시인들의 시와 권애숙·최원준·조성래·김미선·김침·배옥주·이현주·김병상·정가를 등 젊은 시인들의 작품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 최휘웅 시인은 "대중으로부터 소외는 험난한 길이지만, 타성이나 관성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비로소 시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며 "존재의 허무와 절망감을 수반하더라도 현대시가 안고 있는 탈서정적 특징과 현대인의 의식을 지배한 몽상적 사유를 밝혀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 새로운 책



▲세상=강경수 글·그림 삶의 본질을 포착해 극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작가 강경수의 그림책 '세상'이 출간됐다. 태어난 이후 안전한 집에 서만 자라온 아이가 진짜 자신의 세상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펼쳐진다.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의 경이로움을 그리며 성장하는 아이에게 응원과 지지를 전하는 작품이다. 노랑과 검정만으로 세상의 빛과 어둠을 표현하는 독특한 그림과 박진감 있는 전개가 돋보인다. '꽃을 선물할게', '눈보라'에 이어 타인과의 관계와 '나다움'을 생각해 보게 하는 철학 그림책으로, 어린이와 양육자가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기 좋다. /창비·1만6천800원



▲어른의 말투=김범준 저자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절한 무게,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 어른이 될수록 더 갈광질광하게 되는 말의 무게와 온도.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은 저자는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다룬 다수의 책을 출간하며 30만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책은 그동안의 모든 대화법의 완결판으로 말의 톤, 볼륨, 속도, 자주 쓰는 어휘에 따라 어떻게 호감과 비호감으로 나뉘는지, 신뢰와 진정성이 담긴 말투는 무엇인지, 공감하는 말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실기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30가지 언어 습관을 소개한다. /교보문고·1만7천500원



▲낯선 책꽂이에 앉아도 될까요=이효순 저자 부드러운 생활형 이미지 시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효순의 시집이 발간됐다. 중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시인은 교직을 떠난 후 시공간적 자유로움을 반영하는 듯 다양한 시적 소재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굴 속 별뿔뿔처럼 빛나는 손녀 이야기나 툰드라 눈발, 월식, 석대 수목원, 암바 생각, 청춘, 동근불면 등 이번 시집 속 대상은 어느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하다. 그러면서도 시편들은 하나같이 소박하다. 김정수 시인은 "시인의 경험적 세계가 혼합되고 융화돼 기존 사물이 가진 이미지가 과격적으로 전복되면서 개성적 이미지를 창출한다"고 평했다. /작가마을·1만1천원



▲성탄 나무=장세권 글, 윤달 그림 '성탄 나무'는 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한 소나무에 관한 이야기다. 색색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다른 나무들 사이 풀이 죽어 있던 작은 소나무가 우연히 식물원을 찾아온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의 눈에 띄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남들과 비교하며 상처를 받았던 소나무는 비로소 자신만의 가치를 깨닫는다. 작고 불품없던 소나무가 세상을 따뜻하고 환하게 밝혀가는 과정을 통해 삶과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그림책이다. /책고래출판사·1만5천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